# 원의 라마불교, 로마의 기독교

## (고전4:6~13)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원의 라마불교, 로마의 기독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원나라가 라마불교를 국교로 승화한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서,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지배했었던 원나라와 라마불교의 관계, 그리고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제국과 기독교의 관계를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아닌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이 관계의 역사가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고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칭기즈칸이 여러 개의 부족으로 할거되어 존재하던 몽골민족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와 그의 아들 쿠빌라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인류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갖게 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칭기즈칸과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서, 티베트라고 하는 별 볼일 없는 나라를 하나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티베트의 종교가 라마불교였어요.
티베트를 점령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라마불교가 원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칭기즈칸과 그의 후배들이 티베트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티베트에 있는 라마불교가 원나라를 정복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라마불교의 파스파라고 하는 승려는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의 스승으로 추앙이 됩니다.
얼마나 라마불교가 막강해지느냐 하면, 황제의 명령보다도 이 파스파의 명령이 더 우선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라마불교가 원나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정치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아예 온 나라 안에 황제의 칙령처럼 전해졌던 거예요.
라마불교의 승려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는 손을 잘라버릴 것이고, 라마불교 승려에게 욕을 하는 자는 혀를 잘라버릴 것이다.
무섭잖아요?
그렇게 라마불교가 본연의 불교의 정신에서 벗어나면서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라마불교의 타락상이 극에 치달을 때에, 중국의 다수 민족이었던 한족이 명나라를 일으키면서 원나라를 쳐부수게 됩니다.
결국, 라마불교가 지배하는 원나라가 백 년여 밖에 지탱될 수 없었던 이유가 라마불교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원나라가 티베트를 점령합니다, 티베트의 라마불교가 원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라마불교는 쟁취하게 된 부와 권력과 세상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로마제국과 기독교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지중해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로마는 아무 생각 없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마한 유대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이 유대나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결국 313년의 로마제국의 국교로 돼버리면서, 로마제국이 유대나라를 점령했는데, 유대나라에서 생긴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정복의 역전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제국을 정복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이 로마황제의 즉위와 폐위를 결정하는 위치에까지 서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가치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돈을 획득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명예를 획득하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때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자리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기독교는 또 세상가치에 의해서 점령된 거예요.
마치 라마불교가 세상가치에 의해서 점령돼서 썩어버린 것처럼, 기독교도 세상가치를 획득하게 되면서 그 획득한 세상가치에 의해서 다시금 기독교가 거꾸로 점령되면서,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이 부패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관계의 역사의 공통점을 생각하다 보면, 과연 정복이라는 게 뭐냐, 승리라는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우리는 쟁취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것을 쟁취해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쟁취를 향하고 정복을 향한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춤해야 되는데, 실상은 겁 없이 쟁취하겠다고 달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도 결국은 쟁취하는 자들이고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정복과 승리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분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단계에서, 교회의 분파문제를 또 독특하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읽은 부분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의 예를 들면서 지금까지 한 말들, 분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1장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헬라어의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는 위로 높이고 하나는 아래로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여 하나는 위로 높이고 하나는 아래로 낮추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높이면 아볼로를 낮추는 거고, 아볼로를 높이면 바울을 낮추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너희들이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면서, 내가 높이는 아볼로가 아닌 다른 바울은 낮추고, 내가 높이는 바울이 아닌 다른 아볼로는 낮추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이거에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와 나를 동류로 삼으면서, 아볼로와 동지 의식을 갖게 되면서, 아볼로를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깊은 심리상태를 파헤쳐 보면, 아볼로를 높이는 이유는 아볼로와 나를 동일시하고 동류로 삼은 다음에 아볼로를 높임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볼로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락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한 경직 목사님이 내 주례를 서줬다, 한 경직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한 경직 목사님을 나는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한 경직 목사님과의 관계를 자꾸 들먹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경직 목사님이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락교회 안에서,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society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 경직 목사님 얘기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한 경직 목사님의 사상이 이렇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해서 그 분의 신앙적인 사상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전부 한 경직 목사님과 자기 관계를 얘기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또 다시 한 번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가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아지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분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높아지려는 경쟁을 할 때에 그 경쟁의 도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봐요, 아까는 아볼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고 서로 경쟁을 했는데, 7절에서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고 아볼로를 들먹거렸다는 얘기에요.
진심으로 아볼로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근데 이렇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경쟁에 임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수단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받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자기가 획득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가 더 많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경쟁에 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싸워서 앞서기 위한 준비물이 뭐냐 하면, 마음에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고 하는 소유의식이었다 이겁니다.
배부르며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도 받을 수 있고, 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집안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배부르며 풍성하며 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좀 벌면 자기의 의가 높아진다 이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게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또 신앙인은,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돈으로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서, 높아지는 마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잘났느냐 하는 경쟁에 뛰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배부르며 풍성하며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동쪽, 그리고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서쪽, 그 사이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녀본 모든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아마 고린도가 가장 부자도시였을 것입니다.
도시가 부자면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밴쿠버에 있을 때 보면, 100명 교회의 재정이 토론토지역이나 몬트리올지역 교회 재정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또 토론토나 몬트리올 지역의 교회재정은 미국 한인교회 100명 교회 재정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교회 재정이 그렇다는 건, 교인들 개개인의 재정사정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쟁취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가치

중에 으뜸이 되는 우선적인 가치가 돈이 됩니다, 돈.
그런데 고린도교인들이 그 돈을 쟁취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돈을 쟁취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하면, 원나라가 티베트를 정복했을 때와 똑같은, 로마제국이 유대나라를 정복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돈을 쟁취하고 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들이 돈이라는 세상가치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마음이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내가 번 것이고 내가 쟁취한 것으로 알아서, 가치를 쟁취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더 높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돈에 지배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돈을 쟁취했습니다, 근데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쟁취해 버린 겁니다, 다시금.
돈에 먹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배가 부르고 풍성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일이 왕 노릇이라는 거예요, 왕 노릇.
지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통치의식을 갖게 됩니다, 문제의식의 주체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답을 찾으려는 주체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게 왕 노릇이라고 총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바람에, 서로가 왕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괜찮을 만큼 돈을 많이 번 정복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볼로를 택하고 바울을 택하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아바타로 이용하고 내세우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왕 된 의식을 내세우고, 왕과 왕이 영토를 놓고 싸우듯이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볼로와 바울은 너희들이 왕이 되어 있는 왕국의 깃발일 뿐이지, 그 깃발을 내세우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영토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인가 하면, 8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이렇게 왕 노릇하는데, 너희와 우리와의 관계, 사도들과 고린도교인들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너희가 왕이라 그러면 나도 왕 노릇 좀 하자.
'사도인 나도 같이 왕 노릇을 하자!'라고 하는 풍자적인 의미를 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반전이 됩니다.

자! 너희가 왕이라면, 나도 마땅히 왕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상하다, 내가 끼여서 너희와 내가 같이 왕 노릇하게 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나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온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거는, 원형경기장 안에서 사자와 싸우면서 사자밥이 되어가는 사람, 아니면 정말 구경거리로 싸움을 붙여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 싸움꾼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 이게 죽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엔 인격도 없고, 존엄도 없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사람,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인간의 등급을 순위를 매길 때, 끄트머리에요, 끄트머리.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가 왕 노릇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도 같이 왕 노릇 하려다 보니까, 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 너희는 굉장히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왕인데, 나는 너무너무 내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고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도 마찬가지에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나는 한 없이 비천하고 너희는 한 없이 존귀한데, 너희 생각 안에서 너희가 한 없이 존귀한데, 나는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너희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왕 노릇을 한다면 나도 왕 노릇을 함이 마땅하니까 우리 같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에 으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으뜸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왕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과 진정한 정복과 승리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의 위치에 섰는데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기준으로 봐서 인간의 등급을 순위를 매길 때, 만물의 찌꺼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정복한 칭기즈칸보다, 로마제국의 황제나 중국의 황제들보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점에서, 이는 돈을 획득한 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한 자요 진정한 정복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획득함으로써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김으로써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긴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슬퍼하며 억울해 하고 낙오자라고 낙담하는 그런 세상 가치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가치를 진정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들이라는 얘기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정복한 원나라는, 넓은 영토를 가지는 게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를 정복한 원나라는 티베트의 라마불교에 정복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권력과 부를 쥐게 된 라마불교는, 라마 승려들이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마음으로 흡입해 들이면서, 획득하게 되면서, 쟁취하게 되면서, 그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정복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마음속에 획득해 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걸 가진 자라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승리자의 입장에 서게 됐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빌립보서에서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가난한 현상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상태냐? 아니라는 거예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겁니다.
풍부함에 처해서, 마음으로 그걸 획득하지 않아요.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가난에 처했을 때는 가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죽고, 풍부에 대해서 죽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낸 그 길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로 올려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하늘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 교회에 분파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교회에 돈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지역이 돈이 도는 도시였으니까.
돈을 쟁취하고 보니까 돈에 지배가 되면서 나타난 마음의 심리상태가 어떤 영적인 상태였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자 아니냐?'
정복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돈을 지배함을 정복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정복자의 마음이 실상은 돈에 지배되어진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 이거는 마귀에 의해서 지배된 마음.
결국 마귀가 아담에게 넣어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마음을 넣어준 거 아닙니까?
돈이 있음으로서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복당해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돈이 없는 것은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은 승리도 아니고, 쟁취한 것도 아니고,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있는 돈에 대해 죽을 것이고, 없는 돈에 대해 죽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가치의 가장 으뜸자리에 서 있는 그 가치에 대해,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복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 될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의 위치가 주님의 십자가의 위치요, 그 위치에서 만물의 찌꺼기가 된 상태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미국의 빌 게이츠보다 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만물의 찌꺼기 위치에 서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가 알지도 못할 만큼의 신비한 기쁨과 행복에 젖어, 오늘 하루를 진정한 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